<라쇼몽>감상문

게임소프트웨어 B577046 WANG YISEN

소설 '라쇼몽'은 '생존의 어쩔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이기주의'라는 한 사람의 고량으로 자신의 양심과 점점 떨어져 나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이기주의'의 영향 위에서 '사회의 도덕'이나 '남의 이익'이 모두 '이기주의자'가 자신의 소원을 실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동시에 이기적인 사람은 스스로 나쁜 일을 하면서도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도덕적 의존'을 한다는 심리가 잘못한 책임을 외부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게 되므로 거짓말이 생겼다.

영화 '라쇼몽' 초반, 한 중과 한 나무꾼이 나생문에 숨어 비를 피하다가, 곤혹스럽게 가득한 두 사람이 계속 중이 합류하면서 영화는 2층 서사 구조로 나무꾼과 이야기를 전개한다.또 방관자의 관점을 이용하여 전체 이야기 주제를 더욱 심화시켰다

강도—허영

한 강도, 정확히는 채화대도라고 했는데, 하는 짓엔 의리도 없고 심지어 존엄성도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허영 때문에 자신을 '명인' '용사'로 만드느라다양환의 전체 호소 과정에서, 그는 무사를 철골철석하고 무예가 뛰어난 남자로 만들어냈는데, 무려 23라운드를 싸웠다는 식으로 과장되게 묘사한 것도, 자신을 강하고 강한 여자를 무찌르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이다.강도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이미 자랑할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열녀를 모욕하고 용감한 사람을 물리쳤다"는 악행을 자신의 빛나는 사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허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가 거짓말을 하는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무사의 아내-정결

피해자인 무사의 아내는 제2의 서술자로 피해자인 그는 충분히 진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녀는 당황했다.왜 그럴까.이는 뿌리 깊은 정절 관념 때문이다평소 사건을 서술하는 것이 이런 정절 관념으로는 동정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다양환을 냉혈광마로 만들고, 무사 남편을 박정과 과인으로 만들어 자신의 불쌍한 상황을 드러내며,"정결함 표현"은 그녀가 거짓말을 한 동기라고 말할 수 있다.

죽인 무사-존엄

아내가 강도에게 모욕을 당하고 자신도 살해당하고,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인 무사가 마녀를 통해 환혼한 뒤 심문을 받고도 거짓말을 하고 자살했다고 한다.무엇이 귀신에게 복수를 허용하고 포기를 선택했을까.자기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본의 무사로. 일종의 특수한 고대 사회의 계급적, 정신을 숭상하는 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무사도 충성과 신의를, 명예, 염치. 상무무사로서 이렇게 큰 모욕을 당했으니,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복수의 기회를 놓느니 체면을 살려야 한다.그래서 '존엄을 지킨다'는 말은 그의 거짓말 동기이다.

목격자 나무꾼-생존

결국 '진실'은 방관자였던 이 나무꾼의 입에서 득의양양한 환원으로, 모두가 이것이 가장 사실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생겼다.거짓말이 또 들통났다나무꾼도 당황해하더니 무사의 아내가 단검을 훔쳐 달아났다.그는 그 밖의 모든 진상을 말하면서, 자기의 작은 죄악을 감추었다.초부네 집에는 여섯 명의 아이가 있는데다가 여러 해 동안의 전란과 천재지변으로 백성들의 생활이 고달파서 생존 유지는 도둑질의 동기가 되고 도덕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네 당사자가 거짓말을 한 동기를 비교하자: 허영>정결>존엄>생존하다.

비를 피하는 서민-완전한 이기주의자

서민들은 결국 버려진 아기의 옷가지를 빼앗아갔다"모두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악을 행하지도 않고, 악을 행하지도 않는다"는 사상 하에서, 서민의 행동은 바로 '완전한 이기주의자'의 가장 좋은 해석이다.인간성은 바로 이러한 의식 사유 속에서 갈수록 사라지게 된다.

스님-선악의 방관자

살인 사건에서, 그는 단지 아주 작은 목격자일 뿐이고, 영화 전체의 구조 속에서, 그는 다만 방관자에 불과하다.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그러나 갓난아이의 옷을 빼앗는 서민들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의 거취에 대해 그는 "당신이 손해를 보면 나는 그래도 사람을 믿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래서 그는 아기를 나무꾼에게 주었는데, 자신이 가서 먹이지 않았다.이런 부작위가 또 다른 '이기주의'가 아닌가.하지 마라, 그러니까 옳고 그름, 선과 악이 있을 수 없다!

심판자-관객인 우리

영화의 재미있는 설정 중 하나가 사건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심판이라는 역할이 없고 대사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사실 관중인 우리는 바로 이 심문의 '심사관'이다.영화 속의 선과 악을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것 외에, 우리는 높은 도덕적 모범으로 주변 사람들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그러나 정작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무꾼-생활 속의 우리

시게카와 류노스케는 젊은 시절 하녀 요시다 미생을 사랑했지만, 양부모와 그를 가장 사랑했던 큰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혀, 그의 연애는 병 없이 끝났다.요시다 미생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시집갔다개천은 이 때문에 매우 괴롭다.한 가지로 그는 가족이 소위 호의로 감추고 있는 이기심을 느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과정에서도 자신의 이기심을 깨달았다.이러한 경험과 사상은 그의 소설 창작에 깊이 영향을 주었다.나무꾼은 이렇게 남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고 자신의 이기적인 행동을 반성하는 보통사람의 모습이죠.이 인물의 '반사'를 통해 인간의 본능에 대한 양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초부'는 마치 생활 속의 우리처럼, 남의 악을 비판하며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의를 가지고 인간미를 숭상하고 있다!

지금은 실제 사건 발생 직후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증명하거나 거짓말을 날조해 진실이 밝혀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진실은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도덕과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윤리 고문에서 나왔다.